

광주시민인문학 10년 '또 다른 시작'



100기 정기강좌를 맞은 광주시민인문학은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민인문학 제공>

2012년 12월부터 매월 1회 정기강좌... 내일 100기 맞아 '인문택시' 등 다채... 지금까지 5000명 수강 시민과 공감 이달 강좌도 몸의 철학·하루키 월드·책읽고 글쓰기 등 풍성

어느 한 분야에서 10년간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돈이나 눈에 보이는 성취로만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묵묵히 10년을 지속해 인문학이라는 텃밭을 가꾸고 있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012년 10월 제1기 정기 강좌를 시작한 '광주시민인문학' (대표 명혜영·시민인문학)이 100기 강좌를 열게 돼 화제다.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 2층, 시민인문학이 들어선 이곳은 다양한 책과 음악, 그리고 인문학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시민인문학은 그동안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1회 정기강좌를 개설해왔다. 100기 강좌를 하는 동안 대략 5000명 정도가 시민인문학을 거쳐 갔을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민인문학의 모토는 리얼리티 인문학입니다. 물론 행동하기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나름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시민인문학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진 섭외, 회원 관리 등을 중추적으로 담당해온 신우진 사무국장은 "출발은 무모했지만 어느덧 100기라는 결과물을 손에 받아들다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춘 10년을 오롯이 바친 100기가 일종의 훈장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당초 시민인문학의 출발은 학문공동체 '무등지성'이었다. 지난 2012년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이 대학에서 하지 못하

는 인문학을 학교 밖에서 해보자는 취지로의 기투였다. 당시 신 사무국장은 간사 역할로 참여를 했다. 이후 학문공동체는 변화를 맞게 되고 2015년 광주시민인문학은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갖추는 변신을 시도한다. 광주전남 최초의 시도였고 당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표를 맡고 있는 명혜영 박사는 "10년 전 출발해 100기가 된 지금은 하나의 종착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출발선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인문학을 공부함으로써 사유하고 성찰해 통찰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민인문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전체적으로 강좌는 내부강좌와 외부강좌, 공모사업 프로그램으로 진행돼왔다.

내부강좌로는 '자본으로 철학하기', '인문철학', '인문택시', '서양철학', '동양철학', '심리학', '사회학', '영화인문학', '이론스터디' 등을 진행했다. 외부강좌는 시민인문학이 찾아가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푸른길 인문학을 비롯해 '장애인 인문학', '청소년 인문학', '소외·취약계층 인문학', '고려인 인문학', '계림인문학' 등을 들 수 있다.

공모사업 프로그램은 시민인문학이 기획을 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세대간 소통을 겨냥한 '세대공감 인문학',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양성평등 인문학', 지역 공동체를 조명한 '글로벌 인문학', 공동체 회복과 형성을 위한 '공동체 인문

학' 등이 있다.

가장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은 인문적 글쓰기다. 자신의 삶을 언어로 풀어내 객관화하는 작업으로 미처 보지 못했던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10년이 넘게 '돈이 안 되는' 인문학 단체를 끌어들여 힘든 적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만만치 않은 비용은 조합원들의 회비와 약간의 후원금으로 충당해왔다. "인문정신을 전하기 위해 욕심을 자제하며 희생과 봉사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는 신 사무국장의 말에서 저간의 어려움이 읽혀졌다.

100기 강좌와 맞물려 제2의 출발, 또는 변신의 목소리도 있다. 강의 방식과 전달 방식, 연구 방향에서의 변화를 말한다.

명 대표는 "소수 정예와 동아리 형식을 매개로 수강생 중심 및 자유주제 리포트 형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강의 전달 위주의 톡다운 방식을 탈피해 수강생들의 니즈에 맞춘 능동적인 형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일 개강하는 100기 정기강좌는 서명원 교수, 위상복 교수, 신광용 책임연구원, 진정환 이사 등 외부 강사진과 명 대표, 신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철학', '책읽고 글쓰기', '찾아가는 인문학', '하루키월드', '인문택시' 등 다양한 강좌를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 광주시민들과의 소통과 만남을 상징한 시민인문학이 150기, 200기를 향해 순항하면 하는 바람이다. 신 사무국장의 말이 오래도록 귀에 남는다.

"인문학을 매개로 다양한 시민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서 나아가 인문정신으로 영감을 주고 받았으면 합니다.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봐주는 진솔한 친구 같은 존재를 꿈꿉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7개국 외국인들 광주비엔날레 홍보 나선다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식이 28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3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사진> (제)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박양우)는 국내 거주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이번에 선발된 글로벌 서포터즈는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등 총 7개국 출신의 외국인들로 오는 7월 17일까지 약 5개월 동안 각자의 SNS를 통해 광주비엔날레 관련 콘텐츠 기획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대식 이후에는 유튜브 단(본명 다니엘 브라이트)과 조엘(조엘 베넷)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생존하기'라는 제목의 강연이 이어졌다.

영국인 단과 조엘이 운영 중인 '단앤조엘'은 구독자 3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로 두 사람의 한국에서의 일상, 문화 등을 소개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강연은 최종 선발된 글로벌 서포터즈를 격려하는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예술인 지위·권리보장 실행 기대"

예술인·11개 예술단체 '광주시 조례안' 환영 논평

광주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지난달 23일 제정되어 공포·시행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개 예술사회단체와 예술인들은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광주광역시에 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침해 구제, 성평등 예술환경 구축 등 예술인 권리보호 체계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의미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 예술인 지위와 보장 조례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예술인사회단체는 "조례안은 김나운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민관협력TF(예술인, 시민단체, 의회, 시, 전문가들로 구성)가 1년간의 숙의 과정과 현장예술가와의 집

담회, 민·관·정 토론회를 거쳐 제정 공표되었다"며 "예술계의 고질적 관행에 의한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와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호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를 해줄 수 있는 기구 마련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관·정의 협치 과정에서 필수조항임을 공유한 바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실행의지로 표출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광주광역시에서는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공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만화 '미생' 4년 만에 15권 단행본 출간

회사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려내 큰 인기를 끈 만화 '미생' (더오리지)의 새 단행본이 4년 만에 출간됐다. 이번에 나온 제15권에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다가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영업 3팀에 발령받게 된 장백기의 이야기가 담겼다.

윤태호 작가가 그린 '미생'은 2012~2013년 다음웹툰(현 카카오웹툰)에서 연재된 작품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tvN 드라마가 만들어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2015년부터 윤 작가가 동국제강과 코트라(KOTRA), 요르단 등을 직접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즌 2를 연재해왔으나 팔 부상 등으로 2018~2021년에 3년 넘게 연재를 중단한 바 있다.

윤 작가는 집필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그 종사자가 희화화되거나 비하되고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소비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 이미지를 개선하고 힘을 불어넣는 것이 '미생' 시즌 2를 통해 전하고픈 메시지"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